



교보증권 박중서 광주지점장은 현대오트넷과 하나로텔레콤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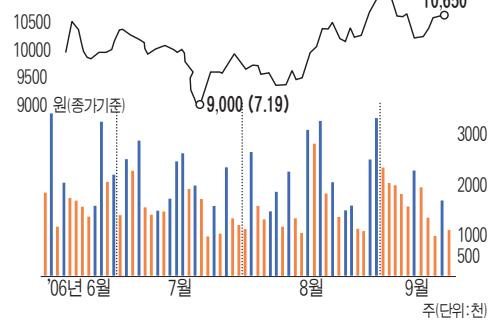
복제를 보여 차 부품업체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車 부품업체 실적 개선 기대 '하나TV' 등 호재 잇따라

■ 현대오트넷

현대차그룹의 전문 전자부품업체로 차량용 내비게이션, 오디오, DVD 등을 생산하고 있다.

■ 현대오트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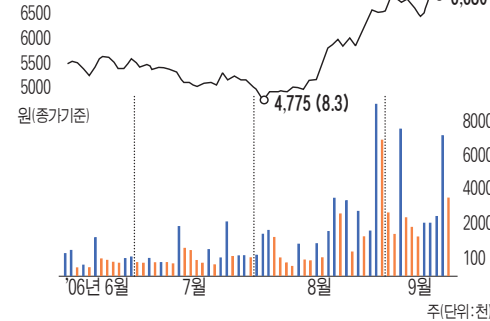


현대차와 기아차에 의무적으로 장착하기로 한 고성능 내비게이션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향후 주력상품으로 실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서비스 업체. 두루넷을 인수합병하면서 국내 초고속인터넷 2위 업체로 부상했지만 LG와워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 하나로텔레콤



통해 경쟁사보다 빨리 IPTV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가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IPTV와 하나TV 등의 호재는 이미 주가가 반영됐고 경쟁사들이 하나로텔레콤과 같은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 한 주가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올 임금 평균 5.1% 인상

노동부 조사, 작년보다 상승폭 커져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5.1%를 기록해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지고 임금이 동결 또는 하향 조정된 기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100인 이상 6천330개 기업 중 임금교섭이 타결된 곳은 2천755개로 43.5%의 타결률을 보여 작년 동기(43.7%)에 비해 타결률이 0.2%포인트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교섭이 타결된 기업의 평균 협약 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5.1%로 작년 같은 기간의 4.6%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임금을 하향(0.8%, 22개) 또는 동결(13.8%, 380개)한 기업은 402개로 임금

교섭이 타결된 전체 기업의 14.6%에 불과했고 이는 작년 동기의 20.5%보다 5.9%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부문별로는 민간부문이 5.2%의 임금인상률을 보였고 공공부문은 3.4% 인상되는 데 그쳐 평균치를 밑돌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오락·문화 및 운송관련서비스업(6.2%)과 건설업(5.8%), 도매 및 소매업(5.8%), 금융 및 보험업(5.6%) 등의 임금인상률이 높았고 통신업(0.9%), 부동산 및 임대업(2.9%), 운수업(4.0%) 등은 비교적 낮았다.

규모별로는 100인~299인, 500~999인, 5천인 이상 사업장 등이 각각 5.4%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300~499인인 5.2%, 1천~4천999인 사업장은 4.7%의 인상률을 보였다.



서울 약령시 약재설기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열린 제12회 서울 약령시 한의학 문화축제에서 상인들이 약재설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해외기관들, 한국경제 암울한 전망

도이체뱅크 "성장률 4%"

IMF도 4.3%로 낮춰 잡아

투자은행 등 해외 주요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들은 점차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 한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경기급랭을 막기 위한 금리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17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도이체뱅크는 지난 11일자 아시아 경제 월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함께 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 4.3%와 비교해 0.3%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도이체뱅크는 내년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3%로 떨어지면 한국의 수출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JP모건은 지난 8일자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전망치인 40억달러를 크게 밑돌아 '0'에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했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하향 수정도 잇따르고 있다.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

망(WEO) 보고서에서 중국의 투자둔화 가능성, 고유가, 보호무역 위협 등을 장애요소로 지목하며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5.5%에서 5.0%로, 4.5%에서 4.3%로 낮췄다.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5.1%, 4.9%로 0.2%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고, 인도와 일본의 성장률을 올려 잡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앞서 8일 리먼브라더스도 글로벌 주간경제 모니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4.8%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속적 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감안할 때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리먼브라더스는 밝혔다.

가장 적은 수치다.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는 작년 1월 이후 20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준산업 분류체계가 수립 등을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2000년에 바뀌기는 했지만 2000년의 경우 구체계에 비해 5만3천명(1.3%)이 줄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고용통계로 1999년 8월(402만3천명) 이후

제조업 취업자 수 7년만에 최저

8월 411만4,000...작년 보다 5만3,000명 줄어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화시대 고용 창출의 동력이었던 제조업 분야 취업자 감소는 고임금과 각종 규제 등을 피해 산업자본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기는데다 자동화 1인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등 구조

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11만4천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만3천명(1.3%)이 줄었다.

500억~ 1,000억원 규모

주식펀드 중 수익률 '최고'

펀드 투자 확산으로 자산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펀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펀드 사이즈가 커지면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매수 여력 확대로 펀드 운용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펀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경우 편입 종목 수가 늘어나 시장 평균치를 웃도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하는 편이다.

그렇다면 운용의 효율성도 높이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펀드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국내 성장형 펀드를 규모에 따라 분류해 지난 2004년 이후 지난 12일까지 누적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500억원~1천억원 사이의 펀드군이 63.75%로 가장 좋았다.

또 100억원~500억원 규모 펀드군은 62.49%로 이에 못지 않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1천억~5천억 규모의 대형 펀드의 경우는 누적 수익률은 57.00%에 그쳤고, 10억~100억원 사이의 펀드군은 54.51%로 가장 수익률이 저조했다.

이런 현상은 조사기간 내내 꾸준히 이어져왔다.

즉 2004년 연말을 기준으로 한 1년 수익률에서도 500억~1천억원 펀드군이 6.24%로 100억~500억원(5.35%), 1천억~5천억원(4.46%)을 웃돌았고, 10억~100억원 펀드군의 수익률은 3.54%로 가장 저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예술작품 투자 펀드 국내 첫 출시

국토신산업증권은 예술 작품에 투자하는 '아트펀드'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명품아트사모 1호 펀드'는 75억원 규모로 투자자산의 95%를 미술품에, 나머지 5%를 채권, 어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목표수익률은 연 10% +  $\alpha$ 며 미술품 매각수익의 일부분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미술품 선정은 표화랑, 펀드운용은 서울자산운용이 맡는다. '서울명품아트사모 1호 펀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백남준, 김홍수, 김창철, 이용덕 등 한국 작가와 위대한민, 지다춘, 정관수 등 중국 작가들의 작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최소가입금액은 1억원, 만기는 3년6개월이다. /연합뉴스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 변화

소비 증가율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져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져 우리나라가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업자원부의 2005년 에너지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2004년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3.4%로 같은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9%보다 낮았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1998년에는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2.9%로 경제성장률 1.4%를 웃돌았다. 에너지원별로는 가스(이하 연평균 증가율 9.1%)와 전력(7.4%)은 대폭 증가한 반면 석유(1.3%)와 석탄(3.0%)은 소폭 늘어나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사용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석유의존도는 2004년 58.4%로 2001년의 62.2%보다 떨어졌다.

전체 에너지원 중 가스의 비중은 2001년 8.8%에서 2004년 10.3%로, 전력의 비중은 2001년 14.9%에서 2004년 16.6%로 각각 올라갔다.

부문별 에너지 소비 비중은 산업부문이 2001년 56.2%에서 2004년 55.3%로 떨어졌고 가정부문도 2001년 14.1%에서 2004년 13.1%로 하락했지만 수송부문은 22.8%에서 23.5%로 소폭 늘어났고 상업부문은 6.9%에서 8.1%로 상승했다. 제조업의 에너지소비원단위는 2001년 0.49에서 2004년 0.42로 떨어져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운전자가 낸 교통세 100조원

도입 13년만인 올해 넘어 설 듯

자동차 운전자들이 휘발유와 경유를 차에 넣으면서 내 교통세가 도입 13년만인 올해로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교통세는 예초 2003년말까지 10년간 겨우겨우 했었으나 시일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발간한 '2006년 국정감사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교통세 누적 세수규모는 1994년 도입 이후 2005년까지 90조7천386억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에 교통세가 11조7천억원 정도로 돼있어 이를 합치면 교통세 누적세수 규모가 102조원을 넘게 된다.

1994년 2조4571억원으로 시작된 교통세는 2000년 8조4천926억원, 2002년 9조7천131억원으로 늘어나다 2004년에 10조742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10조3천770억원이 걸렸다.

교통세는 현재 휘발유에 1당 526원, 경유에 1당 349.25원이 판매가격에 포함돼 과세되고 있다. 또 교통세의 15%인 교육세, 26.5%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휘발유·경유 판매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낸 유류관련 세금은 교통세 규모보다 훨씬 많게 된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98회)

Table with columns for lottery numbers and prize amounts.

팝콘복권 (제21회)

Table with columns for popcorn lottery numbers and prize amounts.